

야간관광 콘텐츠로 전주의 밤 색다르게 물들인다

시, 5월 22일~11월 14일 매주 금·토요일 밤 다채로운 특화 콘텐츠 운영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전주시가 올해도 체류형 관광객 유치 위해 전주의 밤을 색다르게 물들일 특별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제공키로 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서 오는 5월부터 11월 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Club The 8 △야간연회 △전주 심야극장 △달빛한잔 등 특화 콘텐츠와 △캔들라이트 콘서트 △대만민국 반박페스타 등 협업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총 9000여 명 이상의 관광객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

중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사업 시행 4차년도에 맞춘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에서 벗어나, 상설콘텐츠를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연중 운영해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에 발굴된 야간명소에 전주만의 색을 입혀 전주의 밤을 다채롭게 채워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오는 5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전주한옥마을 전주천 일원에서 'HI-LIGHT 전주! 달빛한잔'과 '리버마켓'을 연계 운영한다.

이 가운데 '달빛한잔'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리버마켓'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스트리트 펍으로 운영되며, '리버마켓'은 한복부~오후 6시까지 지역 셀러와 작가들이 참여해 감각적인 소품과 수공예 제품을 선보이는 플라마켓으로 방문객들에게 감각적인 쇼핑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달빛한잔'과 '리버마켓' 행사장은 보행 중심의 동선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한복부부터 오후 6시 일원까지 이어지는 전주 천변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콘텐츠를 체험하며 걷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관광 경험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오는 6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전주한옥마을 트레디라운지에 캠핑장 콘셉트의 야외 상영관을 조성해 매월 엄선된 영화와 그에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즐기는 '맛있는 전주심야극장'도 선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 감동과 행복을 선사했던 'HI-LIGHT 전주! 야간연회'는 오는 9월~10월 완판본문화관에서 퓨전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공연과 함께 다채로운 마식을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콘텐츠 운영을 통해 한옥마을 중심부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확장하는 것은 물론, 관광객들의 체류를 유발해 야간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일본 단체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면서 전주시가 추진해 온 일본 방한 관광상품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일본 방한 관광상품 유치 결실

일본 현지 흡소핑 통해 판매... 단체 관광객 58명, 전주 찾아

일본 단체 관광객이 전주를 방문하면서 전주시가 추진해 온 일본 방한 관광상품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시는 지난 20일 일본 현지 흡소핑을 통해 판매된 '방한 여행상품'을 이용한 단체 관광객 58명이 전주를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일본 대형 여행사인 한류교통사의 방송 판매 상품 유치와 대규모 현지 모객을 통해 일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방한 상품은 부산으로 입국해, 경주와 전주, 수원, 서울을 순

회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전주를 찾은 일본 단체 관광객들은 전주한옥마을에서 숙박하며, 경기전과 전통성당 등 주요 역사자원을 답사하게 된다. 또, 전주비빔밥과 초코파이 등 전주의 맛과 멋을 체험했다.

일본 관광객들은 앞서 판매된 방한 상품을 통해 전주를 찾고 있으며, 7월까지 예약된 인원만 22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광거점도시 전주가 일본 현지에서 매력적인 한국 여행지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5분 자유발언 이어가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보훈수당 대상 확대·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 촉구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온혜정 의원(우이·2, 호성동)은 고유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제안했다. 온 의원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소규모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전주시 실정에 맞는 베란다 태양광 보급을 통해



온혜정 의원 채영병 의원 양영환 의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영병 의원(효자1·3·4동)은 보훈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보훈수당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채 의원은 "상위법은 군경뿐 아니라 재해사망·부상 공무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주시 조례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보훈의 취지에 부합

하지 않다"며 재해사망공무원과 재해 부상공무원을 보훈 수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양 의원은 "배달 수요 증가와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으로 외식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부담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면적 기준 완화로 전주시가 직접 수거를 담당할 경우 사업장당 연간 약 100만 원의 비용 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안 검토를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종량제 봉투 흰색·초록색 모두 사용 가능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때 기존 흰색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된 초록색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녹색기술제품확인을 받은 친환경 종량제 봉투를 일부 도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수급 불균형 방지와 유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종량제 봉투를 공급해왔으나, 최근 생산 여건 개선과 물량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짐에 따라 판매소 수요에 맞춘 충분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매소별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 이루어져 재고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되고,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에 새롭게 공급되는 종량제 봉투 중 일부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환경성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제품이다.

특히 녹색기술제품확인 제 품은 재활용 원료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흰색 계열과는 다른 초록색 계열로 제작됐으며, 기존 봉투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시는 이번 공급 확대와 친환경 제품 도입을 통해 충분한 물량 확보 기반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 가치도 함께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인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 환류' 촉구

전주시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세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류해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세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부가가치세 지방환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할인발행 지원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전액 국세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환류하는 제도 마련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류 기준 설정 및 형평성 확보 △재정분권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김동현 의원

전주시의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절차 개선 촉구

전주시의회가 교통 흐름에 영향이 적은 단순 민원 시설물조차 경찰 심의에 묶여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동현 의원(산천1·2·3, 효자1동)이 대표 발의한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 절차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매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속한 민원 해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 단계 축소와 실질적인 현장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절차의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한 관련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지자체 자율 권한 확대 △신속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지역에 대한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이다. /권희성 기자



김동현 의원

동행축제

2026

모두의 동행, 동행축제

전북 지역축제 연계 행사

행사명	일정	장소
제23회 고령 정보리밭 축제	4.18(토)~5.10(수)	고령군 공음면 학동농장 일원
제9회 익산백제 국가유산이행	4.24(금)~4.26(일)	익산백제중앙공공리유역 일원
2026 전주 이만나무축제	4.25(토)~5.31(일)	전주 팔복동 이만나무 절경, 팔복예술공장 일원
제96회 남원 온향제	4.30(목)~5.6(수)	남원시 삼천루 및 요천 일원
2026 익산 서동축제	5.4(금)~5.31(일)	익산 신동근린공원 및 중앙체육공원 일원
제41회 익산문화제와 함께하는 익산N페스티벌	5.4(금)~5.31(일)	익산익산공원 및 익산문화제 일원
익산구시장 동행축제 온라인합인대전	5.1(금)~5.10(수)	익산구시장 일원